

# 해외건설시장 및 우리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팀장  
lsh@icak.or.kr

## 1. 서론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움직임이 역동적이다. 우리 건설기업의 200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476억불로 사상 최대 연간 수주금액을 기록하였고, 2006년 해외건설 수주 누적 금액 2,000억불을 달성한 이후 업계의 전망을 뛰어 넘어 단기간 내에 3,000억불을 돌파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를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심화된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해외건설분야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건설기업의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50%인 131억불로 마감되었다(8월말까지 약 200억불 수주). 고유가와 인프라개발 붐으로 2007년과

2008년 수주가 급증한 뒤에 실적이 감소하다보니 올 상반기 내내 해외건설 경기침체 및 수주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 해외건설 수주가 100억불을 넘었던 것이 10회에 불과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1억불을 수주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수치이다.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 주요 발주처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 2년간 해외건설 수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나머지 실제로는 올해 실적이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고유가로 자본을 축적한 중동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해외

건설의 수주가 급감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국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해외건설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수입 유발 없는 외화 공급원으로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비롯해 국내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 산업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주가 꾸준히 유지됨으로써 해외건설이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단순 도급형 토목 건축 공사 위주의 수주가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종으로 바뀌었으며, 초고층건물, 항만 개발 등 후발 개도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표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억불	45,950	48,033	50,234	52,561	55,021	57,623
----	--------	--------	--------	--------	--------	--------

자료: 「World Construction Outlook」, Global Insight, 2007. 9.

〈표 2〉 지역별 세계 건설시장 규모

(단위:억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5,950	100.0	48,033	50,234	52,561	55,021	57,623	100.0	4.6
아시아	17,002	37.0	18,107	19,284	20,537	21,872	23,294	40.4	6.5
서유럽	12,866	28.0	13,303	13,756	14,223	14,707	15,207	26.4	3.4
동유럽	1,379	3.0	1,496	1,623	1,761	1,910	2,073	3.6	8.5
북미	10,569	23.0	10,706	10,845	10,986	11,129	11,274	19.6	1.3
중남미	2,298	5.0	2,458	2,630	2,815	3,012	3,222	5.6	7.0
중동	1,195	2.6	1,276	1,363	1,455	1,554	1,660	2.9	6.8
아프리카	643	1.4	687	733	784	837	894	1.5	6.8

자료: 「World Construction Outlook」, Global Insight, 2007. 9.

## 2. 해외건설 시장

### 2.1 개황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5조불 규모이며 연간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표 1〉). 이 중 외국업체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은 8% 수준인 4천억불 정도로 추정된다.

건설시장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2009년 기준 2조불 규모이며 다음이 서유럽(1.4조불), 북미(1.1조불) 순이다 (〈표 2〉). 우리기업의 가장 큰 시장인 중동지역은 1,455억불 규모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현지 건설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대부분 외국 건설기업들이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최근 수년간 세계 건설시장은 플랜트, 인프라시설, 주택건설 확대로 활황을 유지해 왔다. 이는 2000년 대초부터 시작된 고유가가 2008년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시설 발주가 급증하였고 동남아, CIS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주택

건설 확대에 기인한다. 하지만, 2007년 9월 미국 주택시장 침체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건설시장에서의 영향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2 해외건설시장 동향

### 가. 개황

해외건설시장이란 세계건설시장에서 외국 건설업체들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본 고에서는 2008년 8월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해외건설업체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한다. 2008년 ENR이 발표한 2007년 상위 225대 해외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3,103억 불로 집계되었다 (<표 3>).

하지만, ENR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분을 포함한 실제 해외건설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전체 건설시장의 8%인 3,8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발주물량 증가로 2006년부터 유럽에 이어 2위로 올라선 중동지역의 매출액이 2007년에도 50% 이상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신규 해외건설 계약액

이 40%가 증가한 4,200억불로 고유가와 개발 도상국의 인프라개발 붐에 의한 수주호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외건설시장은 2008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고유가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인력난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들의 공조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발주 확대 등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동국가들이 고유가 시절 쌓아놓은 2조불 정도의 재원으로 플랜트 및 인프라공사 발주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적인 환경 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린 건설(Green Construction)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태양력, 풍력과 같은 녹색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주거, 상업용 빌딩 등 녹색빌딩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건설기업들이 고객 Needs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엔지니어링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건축회사는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토목회사는 시스템엔지니어링과 시공관리가 결합하는 추세이며 사업관리와 같은 soft 분야의 역량강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발주자가 Design-Build 방식을 더욱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술력 및 최고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주자 재량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인 design-build방식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술 활용 및 최고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계약방식이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기존

<표 3> 연도별 해외건설시장 추이 (단위:억불)

연도	2006	2007	2008
전체	1,894	2,244	3,103
유럽	686	719	964
중동	282	414	629
아시아	338	402	554
북미	313	371	452
아프리카	151	179	286
중남미	121	159	213
기타	4	1	5

자료: ENR, 각호

단순한 Lumpsum contract(확정금액방식)에서 Cost plus fixed fee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활용 변화하고 있다. 또한 발주 범위에 따라서는 EPC(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 Turnkey 형태나 설계, 조달,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형태가 있으며, EP+C 또는 공사금액이 계약시 확정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Convertible Lumpsum Turnkey 형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다섯번째로 연불조건, Counter Trade, Buy Back 조건을 제시하는 발주처 측 요구의 다양화로 해외 건설기업은 현지화 및 현지업체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BT, BOT, BLT, 부동산 개발 등 Financing을 동반한 프로젝트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과 건당 수주액의 증가로 인해 하나의 프로젝트

에 대한 위험률의 증가로 리스크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WTO체제와 함께 건설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슈이다.

나.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우리 건설기업

ENR은 2007년 매출액 기준 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2.6%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장이 매우 넓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수주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기업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업체 사이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드러내는 사례를 ENR지가 발표하는 상위 국가 업체들의 매출액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

<표 4> 각국 건설기업의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액 추이

(단위:억불)

1	미국	52	348,4(18,4)	미국	51	383,0(17,1)	미국	35	428,0(13,8)
2	프랑스	9	289,7(15,3)	프랑스	8	336,8(15,0)	프랑스	5	386,9(12,5)
3	독일	6	218,4(11,5)	독일	6	258,9(11,5)	독일	5	320,9(10,3)
4	일본	17	160,3(8,5)	일본	15	187,5(8,4)	이태리	22	253,4(8,2)
5	영국	7	127,3(6,7)	중국	49	162,9(7,3)	스페인	11	251,6(8,1)
6	스페인	8	125,9(6,6)	스페인	8	127,5(5,7)	일본	16	238,6(7,7)
7	스웨덴	1	119,0(6,3)	스웨덴	1	123,5(5,5)	중국	51	226,8(7,3)
8	중국	46	100,7(5,3)	영국	5	117,0(5,2)	스웨덴	4	139,8(4,5)
9	오스트리아	1	87,2(4,6)	오스트리아	1	108,0(4,8)	오스트리아	4	126,9(4,1)
10	이태리	12	58,9(3,1)	이태리	11	67,9(3,0)	영국	23	113,1(3,6)
11	네덜란드	2	51,7(2,7)	한국	10	64,5(2,9)	호주	11	101,1(3,3)
12	터키	20	36,9(1,9)	터키	22	60,7(2,7)	터키	2	85,1(2,7)
13	한국	7	24,0(1,3)	네덜란드	2	60,6(2,7)	한국	3	80,2(2,6)
14	노르웨이	2	24,0(1,3)	그리스	1	39,4(1,8)	네덜란드	15	71,4(2,3)
15	브라질	3	23,4(1,2)	브라질	3	25,7(1,1)	그리스	18	54,7(1,8)
	기타	32	98,3(5,2)	기타	32	120,4(5,4)	기타	33	224,0(7,2)
계	합계	225	1,894,1(100)	합계	225	2,244,3(100,0)	합계	225	3,102,5(100,0)

자료: ENR, 각 호. 주: 세계 225대 건설기업들이 속한 국가별 금액자료임

2007년 ENR 순위 1위인 Hochtief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2000년 74억불에서 2008년 213억불로 증가했으며, 2위인 Vinci의 경우에도 36억불에서 147억불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Skanska, Bechtel, Fluor 등도 같은 기간 두 배 정도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업체들의 매출규모는 경기 변화에 따라 부침을 반복한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내용도 EPC 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진출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규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시장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제공능력이나 기술력제고를 통한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전망

#### 3.1 해외건설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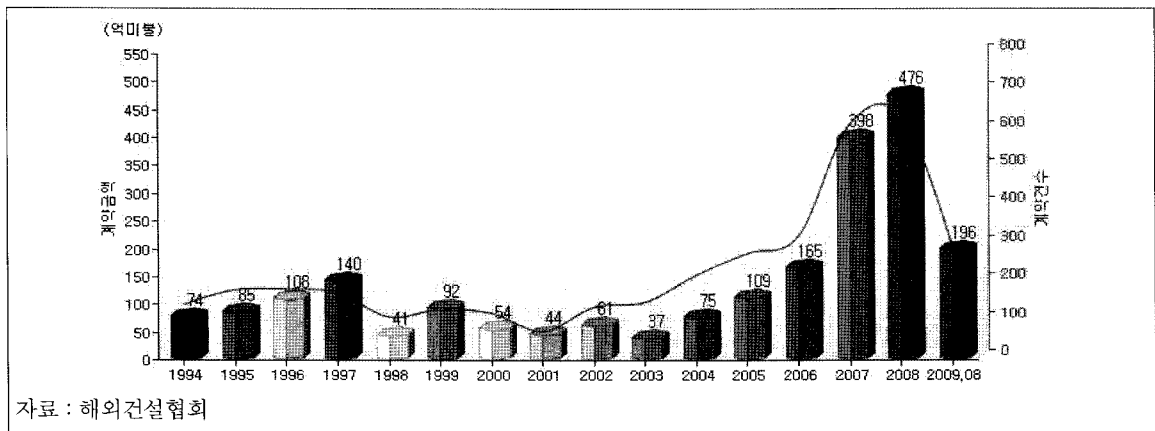
우리 건설업체들은 1965년 태국 도로공사에 참여

하여 최초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래 2009년 8월 11일까지 총 815개사가 124개국에 진출하여 6,938건, 3,197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91개국에서 506개사가 1,335건, 1,305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공중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50억불 내외의 저조한 수주실적을 유지해오다 2004년 75억불을 수주하면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여건 호조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수주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림 1>).

2008년에도 해외건설 수주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3년 수주금액이 37억불에 그치는 등 2000년대 초반까지 불황을 겪던 해외건설은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398억불이라는 금액으로 연간 최고 수주실적을 경신하였다. 이와 같은 수주 증가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476억불을 수주하면서 2006년 2월 수주 누계 2,000억불을 달성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3,000억불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는 상반기에 131억불을, 8월 11일까지는 약 196억불을 수주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건설의 활황으로 우리기업의 해



(그림 1) 우리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진출업체 수는 2003년 109개에서 2008년말 418개 업체로 4배이상 증가했다 (<표 5>).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는 업체도 2003년 109개업체 정도에서 2008년에는 851개 업체로 해외진출을 꿈꾸는 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2009년 8월 11일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업체는 총 3,800여개사이다.

### 3.2 수주 특성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단순 도급형 토목/건축 공사 위주의 수주가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종으로 바뀌었으며, 토목 건축 부문에서도 항만, 초고층건물, 교량, 터널 등 후발 개도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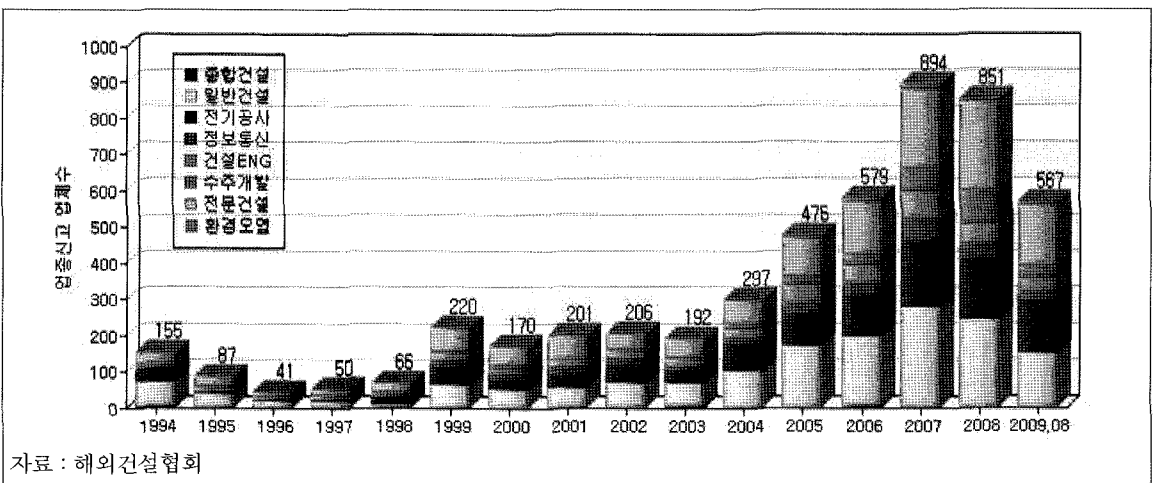
우리기업은 중동지역에서는 주로 석유, 가스전 개발, 석유화학플랜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투자개발형 Project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앙골라, 적도 기니 등 신흥 에너지 자원 개발국에서는 SOC투자 사업(도로, 항만, 석유 등)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 가. 공종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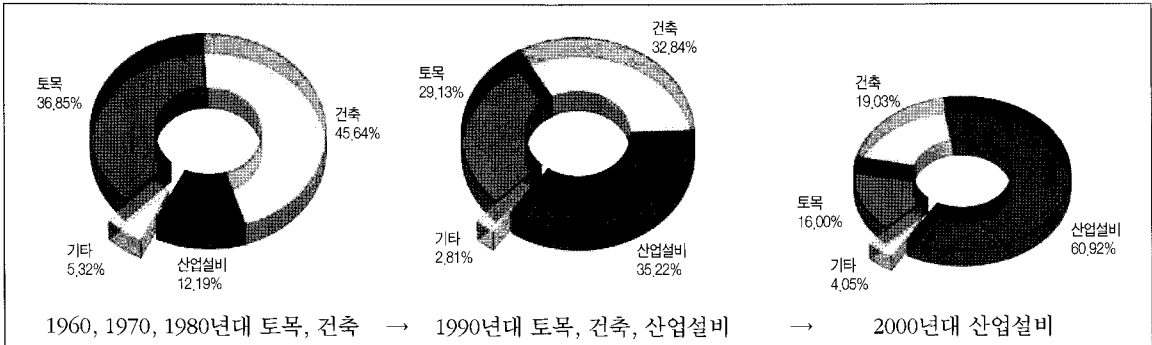
1960~1980년대까지 우리기업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토목과 각종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다 (<그림 3>). 그러나 1990년대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의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수주액의 60% 이상을 고부가가치 사업인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 중심의 플랜트(산업설비, Oil & Gas의 Downstream, 담수, 발전)가 전체 해외공사 수주액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6%, 2006년 66%, 2007년 64%, 2008

<표 5> 프로젝트 수행중 업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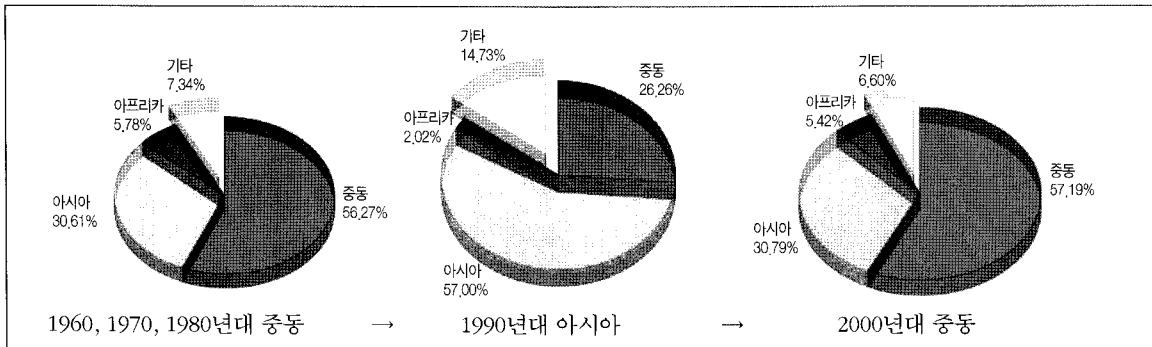
업체수	76	81	93	109	134	144	189	314	418
-----	----	----	----	-----	-----	-----	-----	-----	-----



<그림 2> 해외건설업 신고현황



〈그림 3〉 공종별 수주 추이



〈그림 4〉 지역별 수주 추이

년 61%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몇년간 고유가로 인한 산유국들의 호화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업체의 계약형태별 수주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1960~1980년대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발주자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도급형 공사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각 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과 프로젝트 금융 기법의 발전으로 개발형 공사와 BOT (Built Own(operate) Transfer)공사 등에 약 10%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 나. 지역별 특성

최근의 수주확대는 무엇보다도 고유가로 인한 중

동지역의 발주물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다 아시아 국가들의 건설경기 회복 또한 수주확대에 한 몫을 했다.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항만, 도로, 플랜트 등 각종 인프라시설 수주가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되었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종별로도 플랜트, 토건 등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또한, 중소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표 6〉 우리 해외건설업체의 계약형태별 수주 비율 추이

(단위 %)

유형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도급형	100	99.8	99.9	86.1	93.7	93.7
BOT	-	-	-	4.3	-	1.2
개발형	-	-	0.1	9.6	6.3	5.2

자료 : 해외건설협회

### 3.3 해외건설 진출 전망

최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로서는 2009년 이후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다시 유가가 상승세를 타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안 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은 중동 산유국과 같이 정부재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야기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업체간 지나친 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주경쟁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건설업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효과가 큰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ODA를 통한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진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발주처의 재원으로 시공사에 직접 발주하는 도급형 프로젝트의 전망을 살펴보면 수행중인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동 산유국 및 오일 메이저의 사업으로 영향이 미미하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3국의 Developer 공동참여 사업은 취소 또는 연기가 예상되며 금융위기 영향권 밖에 있는 인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공사의 지속 추진이 예상된다.

개발형 프로젝트는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분양률 저하 등 사업 추진 난항이 우려되나 신규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투자 기피로 2009년 상반기에는 사업 검토를 유보하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일부 국가에서는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 : 대림산업 시공(1966. 1. 1~1967. 3. 1, 공사액 851천불)

〈그림 5〉 베트남 Rach-Gia항만 파일박기 공사

## 4. 해외 항만사업 진출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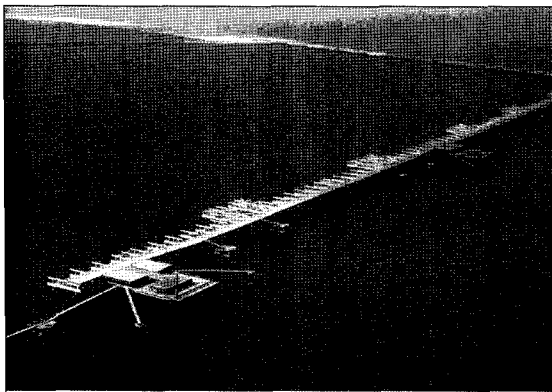
### 4.1 해외 항만사업 진출 동향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항만관련 최초 진출은 대림산업이 1966년 1월 15일 수주한 '베트남 Rach-Gia 항만 파일박기 공사(851천불)'로 공기는 14개월이며 베트남 O.I.C.C가 발주한 공사이다 (〈그림 5〉).



2009년 8월 11일 현재 항만분야 누적 수주액은 현대건설 등 66개 업체(하청사 포함)가 사우디 등 37개국에서 총 139.5억불(171건)을 수주했으며, 대우건설 등 24개업체가 25건 42.5억불을 시공중에 있다.

항만분야 최대 수주 기업은 현대건설로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및 싱가포르 파시르 판장 터미널공사 등 71건 89억불의 항만공사를 수주 시공하여 전체 우리 건설기업 항만공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 현대건설 시공(1976. 6. 16~1980. 12. 27, 공사액 931백만불)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주 : 한진중공업 시공(1991. 6. 23~1995. 7. 31, 공사액 33백만불)

〈그림 7〉 필리핀 제2차 마닐라 북항만 공사

2위는 한진중공업이 9건 17.1억불, 3위는 대우건설이 9건 10.3억불의 공사를 수주 시공 중에 있다. 이들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우리기업의 수주액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주한 항만공사중 현대건설이 1976년 수주한 주베일 산업항 공사 (〈그림 6〉)는 당시 세계 건설업계에서 20세기 최대의 역사라고 불리웠으며 선진국업체의 독무대였던 해상유조선 정박시설 (OSTT) 시장에 현대건설이 진출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기념비적 공사이다. 공사금액은 1976년 당시의 환율 기준으로 그해 우리나라 예산의 25%의 금액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기대한 공사였다. 동 공사로 현대건설은 해외건설업계에 명성을 날려 중동에서 메이저 건설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그림 7〉의 필리핀 제2차 마닐라 북항만 공사와 〈그림 8〉의 싱가포르 주룽섬 매립공사 2단계 공사가 대표적 해외 항만공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기업의 항만분야 총 수주 누적액(139.5억불)은 전체 해외건설 총 누적액 3,197억불의 약 4.5%로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오랫동안



주 : 삼성물산 시공(1996. 12. 9~1999. 1. 17, 공사액 108백만불)

〈그림 8〉 싱가포르 주룽섬 매립공사 2단계 공사

## 특별기사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항만분야 연대별 수주 추이 ((표 7))를 살펴보면

1960년대 전체 수주액 6,159만불 중 1,200만불(8건) 수주하여 19.5%를 차지하여 그 당시 진출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후 1970년대 항만분야는 20.2억불을

〈표 7〉 우리기업의 해외항만공사 수주 추이

(단위:억불)

연도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2009년 8월	합계
금액	0.12	20.2	15.6	31.5	72.1	139.5
건수	8	35	31	43	54	171

자료 : 해외건설협회

〈표 8〉 2009년 항만분야 수주공사 내역

건수	연대	공사명	발주공사	계약금액	공사기간
10개	8개	전체 14건, 신규 8건	13개	891,582	
라오스	홍화	비엔티엔 메콩강 종합관리사업(제방공사)	Dept. of Public Works & Transport	30,855	2009/02/06 2013/08/05
베트남	포스코건설	포스코-베트남 냉연공장 전용부두 건설공사(본공사)	POSCO-Vietnam Co., Ltd	-791	2008/03/28 2009/03/31
베트남	포스코건설	포스코-베트남 냉연공장 전용부두 사전공사	POSCO-Vietnam Co., Ltd	-1,539	2007/11/23 2009/03/31
싱가포르	현대건설	주룽 지하암반 유류비축기지 1단계 공사	Jurong Town Corporation	592,415	2009/06/15 2013/02/14
UAE	현대건설	칼리파 항만-준설, 매립 및 방파제 공사	아부다비 항만회사	9,616	2007/10/01 2010/09/30
알제리	대우건설	첸첸항 항만 구조물 연장공사	교통부	148,754	2009/07/20 2011/07/19
인도	지피에스	IMEWE 해저광케이블 노선 장애물탐지 및 제거공사	에릭슨	850	2009/03/25 2009/06/10
중국	STX건설	STX 대련 조선소 건설공사(본 공사 4차)	STX(대련)조선/중공/해양중공	77,912	2009/07/17 2010/03/31
중국	STX건설	STX 대련 조선소 지하 저수조 공사	STX(대련)상무유한공사	6,881	2009/06/10 2010/02/28
카타르	대우건설	나킬라트 수리 조선소 공사	카타르 가스운송회사	21,056	2007/12/02 2009/12/31
쿠웨이트	현대건설	올레핀2-슈아이버 항만 확장 공사	에퀴트 석유화학회사	4,024	2006/04/26 2008/05/27
필리핀	에스큐ENG	일리안 발전소 잔교부두 및 광관 파일 정밀 안전진단용역	KEPCO Ilijan Corp.	35	2009/05/22 2009/07/20
필리핀	지피에스	해저 광케이블 노선 장애물 탐지 및 제거공사	Ericsson	410	2008/12/01 2009/01/03
필리핀	한진중공업	수리조선소 드라이독(200M) 확장 공사	Subic Shipyard and Engineering	1,104	2008/10/28 2009/10/27

자료 : 해외건설협회

수주(전체 219.5억불 수주액중 약 10%) 시공하여 전체 비중이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는 15.6억불(전체 645.6억불 수주액 중 2.4%)을 수주하여 육상 토목건축 진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수주가 빈약했다.

1990년대는 31.5억불(전체 717억불 수주액 중 4.4%)로 약간 수주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여타 공종에 비해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다. 2000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항만분야의 수주가 72억불로 증가했으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육상플랜트공사 등의 수주상황으로 전체 1,614억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항만사업의 지역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주력시장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1970~1980년대에는 중동시장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에서 우리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는 아시아, 중동에서 고루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표 8>).

#### 4.2 해외 항만사업 현안 및 향후 진출 전략

##### 가. 현안

우리기업의 항만사업은 주력시장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에 편중 진출하여 왔다 (<그림 9>). 또한 우리 기업들은 역할분담을 통한 우리 기업간 연계 수주활동이 미흡하다. 즉 엔지니어링(토목설계 등)사, 시공사, 개발업체(자원, 부동산)가 공동 협력 진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최근 발주패턴이 발주처 재원이 아닌 Project Financing을 통한 금융조달이 수주를 판가름하고 있으나 우리 여건이 미흡하고 관련 인력 및 PF조달 능력의 부족으로 수주가 쉽지 않으며 신규 진출업체는 이행 보증(P-Bond) 발급의 애로로 공사 시공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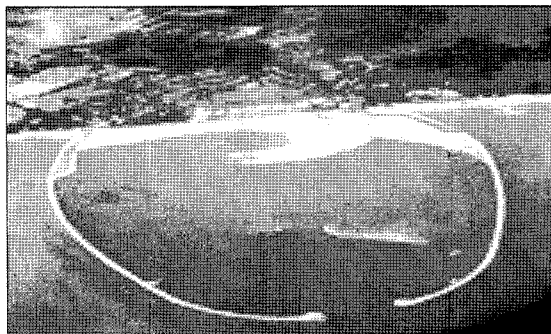
이외 어려운 점은 해외건설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최근 플랜트 수주상황으로 플랜트 공사 인력 뿐 아니라 고난도 해상 항만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 나. 진출전략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초도 진출인 경우 진출 국가 선정 및 진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해외진출 의지 및 수행능력에 관한 '자사의 경쟁력 진단'이 필요하다. SWOT 기법이나 여타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자사의 현재 위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정 진출국가 선정이 필요하다. 진출국가의 발주 동향 파악 및 진출 장벽 분석의 세밀한 조사가 사업 성공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후 초도진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업체와 동반진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찰 경쟁력 보완 진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성 수령이 원만하고 국제표준화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ODA자금 지원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ODA 사업은 경쟁이 치



주: 현대건설 시공(1996. 2. 1~1998. 6. 30)  
공사액 145백만불)

<그림 9> 브르네이, 제루동 방파제 공사

열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이외 아시아 및 신흥 에너지 자원개발국가 등에 Package Deal에 의한 프로젝트 창출과 에너지자원 개발권에 상응하는 인프라(항만) 구축, 소요 인프라(항만) 구축의 대가로 개발형사업 부지 확보 등을 통한 사업개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정부 및 협회의 지원 활용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협회의 지원 사항을 잘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 '해외건설 종합정보 서비스 D/B' 활용

1995년부터 구축한 '해외건설 종합정보 서비스 D/B' 활용이 필요하다. 동 D/B에는 현재 해외건설 관련 프로젝트 정보 154개국, 4,200여건과 사우디, UAE, 인도, 중국 등 56개국의 건설관련제도, 공사 수행환경, 진출절차, 시장전망 등 건설시장 환경(국별 90여개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시장동향과 대사관 제공 자료, 해외건설통계와 선진건설업체, 국제금융기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단가 및 자재단가 정보도 볼 수 있다.

(2)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우리 건설기업들은 미 진출국 프로젝트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 4억불 미만 국가의 프로젝트등에 대해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제공하는 시장개척 자금(약 20억원)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노크해 볼 수도 있다.

유망한 해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발주처 인사 초청 및 연수,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의 범

위는 건당 2억원 이내이며 지원비율은 총 사업 소요 비용의 50% 이내(중소기업은 최대 80%)이다. 2008년에는 55개사 31개국 55건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었다.

(3) 중소기업 수주 지원센터

2006년 4월 5일 해외건설협회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전문 건설업체 진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필요하다. 협회는 20여년 이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별 상담은 물론 P.Q, 입찰서류 및 계약서 검토 지원, 전문인력 알선(해외건설 인력 D/B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에 초도 진출 및 기존 진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도 필요하다. 해외건설 입문과정, 해외건설 입찰, 계약, 금융 실무 과정, 대학생 등 신규 취업(예정)인력 실무 양성 과정 등 교육 참여를 통해 기존에 진출한 업체들의 노하우와 진출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된다.

또한 협회를 통해 해외진출시 해외공사 보증 발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998년 3월 보증 담보 해소를 위한 사업성 평가 시스템이 발족하여 프로젝트 의뢰 시 보증 수수료가 낮은 국책은행에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리업체의 진출을 돕고 있다.

5. 맺음말

해외시장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기술의 투자 및 경험 축적의 기회,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와 다른 Global Standard의 적용과 국가별 사업환경의 차이로 우리기업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

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외건설 인력의 양성 및 발굴에 힘쓰며 위험관리 강화로 해외프로젝트 관리의 선진화를 기하고 해외 틈새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장기적 안목의 진출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치된다면 해외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 The McGraw-Hill Companies, Engineering News Record(美), 2006~2008 각호 Global Insight, 「World Construction Outlook」, 2007. 9.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발주패턴 변화분석 및 공종별 경쟁력 제고방안, 2008. 11.
- 해외건설협회, 세계건설시장 전망과 중장기 대응전략, 2007. 등 등.
- 인터넷, 해외건설협회, [www.icak.or.kr](http://www.icak.or.kr).